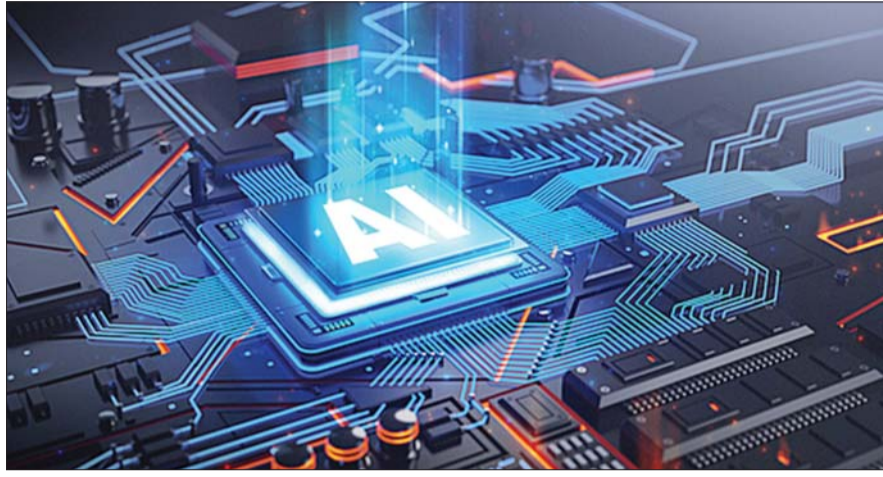


‘AI 대학원’에 서울대·중앙대 선정... 10년간 190억씩 지원

정부 ‘AI 대학원’ 지원사업
1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10개 대학원 구성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인공지능대학원(AI대학원)’ 지원사업에 중앙대와 서울대가 신규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투이미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인공지능 대학원(AI대학원)’ 지원사업에 중앙대와 서울대가 신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12일까지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두 대학의 선정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6일 대학가와 AI대학원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중앙대가 AI대학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은 사전검토와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I대학원 주관 부처·기관인 과기정

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5일 AI대학원 사업에 지원한 대학들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했다. 해당 결과는 12일까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에 아

직 최종 확정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울대와 중앙대의 선정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IITP 관계자는 “12일까지 지원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선정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며 “앞서 3차례 AI대학원 선정 과정에

서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 대학 명단이 바뀐 이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중앙대는 AI대학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각각 190억여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과기정통부가 당초 사업 추진 당시 공언했던 국내 10개 AI대학원의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9년 3월, 2019년 9월, 2020년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AI대학원을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8개 대학이 AI대학원으로 앞서 선정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서울대와 중앙대를 포함한 10개 AI대학원을 기반으로 AI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규선정에 도전장을 냈던 서강대, 경희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화여대, 동국대, 가천대, 경북대, 전남대 등은 AI대학원 사업의 막자를 타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들 대학도 AI대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재원을 들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별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AI대학원은 과기정통부가 관·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핵심 기술 및 고도 학술 연구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AI 석·박사급 인재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IITP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끝나면 12일에서 16일 사이 선정 발표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진로선택과목 활용따라 ‘인서울’ 좌우?

2022학년도 대학 입시

학생부교과 선발인원 늘어
진로선택과목 중요성 대두
대학마다 평가방식 달라
성적 산출따라 등급 상이

올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진로선택과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권역 33개 대학 중 16개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이 진로선택과목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은 공통과목이나 일반선택과목과 달리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원점수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A’, 80점 미만 60점 이상이면 ‘B’, 60점 미만이면 ‘C’의 성취도가 부여돼 최고 수준의 성취도를 받기가 수월한 편이어서, 학생들은 그간 진로 선택과목에 다소 소홀했다.

◆B등급 환산하면 숙대는 ‘2등급’ 이대는 ‘4등급’

서울과학기술대 등 13개 서울 소재 대학은 성취도(A, B, C)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한다. 이 중 건국대 등 7개 대학은 이수 단위까지 고려해 성적을 산출하는데 대체로 성취도 A에 1등급을 부여해 학생들의 평균 등급 상승을 유도한다. 또, 숙명여대는 성취도 B에도 2등급이라는 높은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진로선택과목에 따른 학생 간 변별력은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성취도 B에 4등급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진로선택과목에 따른 변별력이 큰 편이다. 이처럼 대학 간 성적 산출 방식의 차이가 있어 이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의 성적 부풀리기가 일어나 성취도 A를 받는 학생 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서울 소재 대학 진로 선택 과목 반영방법 예시〉

대학명	전형명	반영과목 수*	반영방식
건국대	KU지역균형	3과목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등급
경희대	고교연계	2(인문) 4(자연)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등급
고려대	학교추천	모두	성취도 비율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 점수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	-	정성평가
상명대	고교추천	3과목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점수
서강대	고교장추천	모두	성취도 비율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 점수
서울과기대	고교추천	3과목	성취도별 환산점수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	정성평가
세종대	지군/학생부우수자	모두	원점수 환산점수
숙명여대	지역균형선발	3과목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등급
송실대	학생부우수자	모두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등급
연세대	추천형	모두	성취도별 환산점수
이화여대	고교추천	모두	원점수, 평균을 고려한 환산점수
중앙대	지역균형	모두	성취도별 환산점수
홍익대	학교장추천자	모두	성취도별 환산점수
한양대	지역균형발전	3과목	이수단위 고려한 성취도별 환산점수

*대학의 반영교과내 과목 한정. /2022학년도 대입정보 119-일부 대학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데, 고려대와 서강대의 경우 성취도 별 분포 비율까지 고려해 학생부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따라서 해당 대학에는 높은 성취도를 받는 학생 수가 적은 고교일수록 유리하다.

동국대와 성균관대는 성취도에 따른 단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선택과목의 취지를 살려 정성 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성균관대는 진로선택과목 및 전문교과과목의 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학업수월성 10점과 학업충실성 10점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긴다. 또, 동국대는 진로선택과목을 정량평가가 아닌 서류 종합평가(40%)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 평가함으로써 평가에 포함한다.

세종대는 성취도가 아닌 원점수를 바탕으로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원점수 90점 이상에 1000점, 90점 미만 80점 이상에서 990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같은 A의 성취도라고 하더라도 원점수가 높은 경우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건대·상명대 등 우수 과목만 반영 vs 고대·서강대 모든 과목 활용

진로선택과목 활용에서 반영 과목 범위도 다르다.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 등 일부대학은 진로선택과목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부 우수한 과목만을 활용하지만 고려대, 서강대 등은 대학 반영 교과에 따른 모든 과목을 활용한다. 또, 서울과기대는 자연계열 모집단위로 지원 시에 ‘기하’,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중 2개 이상 반영이 필수이고 한양대는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 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 이상,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심대학의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을 지원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진로선택과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입에 반영되는데, 대학마다 평가 방식이 매우 달라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올해 서울 소재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진로선택과목 활용방법을 파악하면 대학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아주대 산학협력단, 신약 벤처들과 ‘맞손’

㈜젠센·㈜S&K테라퓨틱스와
자가면역질환 신약 개발 등 협력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신약 개발 전문 벤처 기업 ㈜젠센·㈜S&K테라퓨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주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신약 개발 전문 벤처 기업 ㈜젠센·㈜S&K테라퓨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자가면역질환·염증성질환 치료제의 사업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은 지난 5일 아주대 율곡관에서 권용진 아주대 산학협력단장 겸 LINC+사업단장, 이성호 ㈜젠센 대표, 최상돈 ㈜S&K테라퓨틱스 대표(아주대 생명과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젠센은 분자설계모형을 통한 펩타이드 신약 개발 전문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아주대 최상돈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펩타이드를 이용한 자가면역질환 치료 후보물질’에 대해 40억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젠센과는 자가면역질환 펩타이드 치료제 사업화에 힘을 모으고, ㈜S&K테라퓨틱스와는 염증성

질환 화합물 치료제 사업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약 개발 기업인 ㈜젠센과 ㈜S&K테라퓨틱스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젠센은 아주대 연구팀이 개발한 후속 펩타이드 후보물질을 기술이전 받아, R&D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예정이다. 후속 기술이전은 10억원 상당의 규모다.

해당 기술을 연구 개발한 최상돈 아주대 교수(생명과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가 지난해 창업한 기업인 ㈜S&K테라퓨틱스도 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한컴그룹과 드론·항공우주 연구

인력 양성 등 산학협력 MOU



세종대학교는 한글과컴퓨터그룹과 6일 세종대 대양AI센터 12층 컨벤션홀에서 ‘드론 및 항공우주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과학 기술 및 학술 인프라 활용과 확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드론 및 항공우주 분야의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활동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드론 및 항공우주 분야의 신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 전문가 양성 및 연구인력 교류, 자율 무인이동체 연구 분야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